

# 카운슬링을 통해서 본 大學生들의 問題

朴 性 洙  
(서울大 敎育學科)

20세기 후반의 4반세기는 우리 사회가 生存社會에서 正體社會로 이행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大學生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들이 價値觀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를 政體社會의 특징을 보다 많이 지닌 환경에서 보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1. 머리말

요즈음 대학은 참으로 어려운 형세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고 학생들이 던진 돌맹이에 의해 깨어진 유리 조각을 캠퍼스의 곳곳에서 보게 된다. 최루탄 때문에 대학 근처에만 가도 재채기가 나기 십상이며 데모라도 있는 날이면 눈물이나 콧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신문을 보면 大學生들은 매일 데모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데모만 하느냐는 꾸증을 들을 만큼이나 데모를 일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 수업을 하고 있는 강의실에 가 보면 교수의 열강과 진지한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모한 대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먹고 대학'이라는 조소적 표현이 나올 정도로 大學生은 먹고 놀러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형편을 보면, 학생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학생들이 매일 데모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도 학생들의 진지한 학구열에 경의와 놀라움을 가지게 될 정도이다.

분명한 사실의 하나는 우리나라 大學生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학과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교양과 실력을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다. 이른바 운동권 학생이나 운동에 가담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그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의 공부를 소홀히 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 나름으로 책도 읽고 토론도 하면서 그들 나름의 진리를 탐구하고 있다. 다만 다루는 내용이나 서적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학생들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개방적이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히 대학생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보다 우리나라의 전체 형편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훨씬 더 크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나 제도적 병리가 적지 않다. 또한 대학의 교육문화가 안고 있는 병폐도 상당히 광범하고 깊게 깔려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환경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논의로 하고 대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보는 시각은 무척 다양하다. 필자는 한 사람의 카운슬러로서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카운슬링이나 심리치료를 하면서 학생들이 지닌 문제가 일반적 시각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학생 문제의 특성과 핵심이 어떤 것인가를 탐색해 보려고 한다.

## 2. 轉換期的 發達의 苦痛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전환점에서 개인과 사회 전체가 체험하고 있는 發達을 위한 苦痛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것은 변화의 물결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구축하려고 몸부림치는 건전한 노력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生態의 環境은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農耕社會, 産業社會, 脫産業社會가 지니는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이 오랜 역사적 변화를 한꺼번에 체험하고 있으며, 더 좋은 사회 내지 理想的 社會를 건설하려는 정열이 거의 모든 학생과 모든 국민들 사이에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환경적 조건 내지 行動舞臺를 우선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의 가정, 학교, 사회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문화, 국제관계 등의 모든 삶의 현상이

대학생들의 행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삶의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부각시키고 그런 행동무대가 대학생들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의 대학생은 대부분이 5·16이나 4·19를 체험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6·25동란이나 일제의 학정과 해방의 감격을 경험하지도 못하였다. 보리고개나 春窮期가 어떤 것인지 실감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느냐 아니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삶의 문제를 체험한 경우도 매우 드물 것이다. 生存社會의 처절한 몸부림을 체험으로 알지 못하는 최근의 대학생들에게는 生存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더 잘 살고 더 훌륭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生存이 아니라 意味가 문제되는 것이다. 오천 년이 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체험한 적이 전혀 없는 生存을 넘어서 삶의 意味를 추구하는 아주 새로운 사회를 오늘 날의 대학생은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 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느냐가 삶의 최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를 가리켜, Glasser가 말한 대로, 正體社會(identity society)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正體社會에서는 生存社會와 달리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지니는 개인적 의미가 중요하다. 개인의 가치와 이상 그리고 보람과 같은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된다. 20세기 맨 뒷 부분의 4반세기는 바로 우리 사회가 이 正體社會로 이행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현재 그들이 가치관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를, 정체 사회의 특징을 보다 많이 지닌 환경에서 보겠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生存社會와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正體社會로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문제를 보는 우리 사회의 視

角이 생존사회의 준거체계에 고착되어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학생 자신의 視角과 이른바 기성세대의 視角 사이에는 단순한 세대차를 넘어선 엄청난 간극과 갈등이 있다.

기성세대는 正體社會의 인간, 자연, 사회, 문화, 국가, 세계, 인류에 대해서 명징한 認識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상과 지식의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대학생들은 生存社會의 지식으로 무장된 기성세대의 지식체계와 사상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에 회의와 불만을 느끼고, 새로운 社會 내지 理想的 社會을 그려 보고 새로운 人生觀, 社會觀, 世界觀을 구축하려고 방황하고 고뇌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젊은 대학생들도 역시 어떤 이데올로기에 심취할 수는 있어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의 체계를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現實과 理想에 대한 認識體系의 未發達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마치 지도 없이 낯선 고장으로 자동차여행을 하는 것처럼 길을 몰으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면 나침반이나 항해도도 없이 대양을 운항하려는 것처럼 모험과 위험이 뒤따르는 그런 길을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지적 혼돈 속에서도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대학생들이 때로는 예언자의 통찰력 같은 것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꿰뚫어 보기도 한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예언은 합리적 지성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방황과 혼돈 속에서도 이상사회를 마치 메시지를 갈망하듯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지성이 결여되었을 때 인간은 感情의이 되거나 想像이나 神話를 지식의 자리에 앉혀 놓게 된다.

오늘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사회가 카오스와 유토피아의 중간에서 방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명쾌하고 합리적인 인식의 체계, 즉 지식의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데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민족은 멸망한다”는 유태인의 전통적 신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세심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認識의 문제에 내포된 불안정성과 비체계성은 사회적 현상만이 아니라 개인의 內面世界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러한 삶의 배경이 대학생의 意識形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社會觀察者로서 大學生의 問題

歷史的 行動者로서 지식인의 움직임은 현실에 대한 지각과 이해에서 시작된다.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나 정치적 행위는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에서 비롯되며, 또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적 탐구도 역사적 현실이 지닌 전체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보면 자유당정부는 민주주의와 서양의 과학을 도입한다는 기치를 내세움으로써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보여 주고 있었던 것 같다. 공화당정부는 경제 발전을 내세우면서 생존사회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민생고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유신정부는 전혀 새로운 意味中心의 正體社會가 지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넘어졌다. 그리고 민정당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정의·복지사회를 내세웠다. 40대 이후의 기성세대가 주축이 된 현재의 지배계층은 생존사회의 의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다. 정체사회가 지닌 문제의 핵심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意識과 知識의 문제를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이제까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지식인이 추구하였던 해방,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경제적 독립과 같은 것의 성취만으로는 자신들이 안개처럼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는 이상적 사회 내지 새로운 사회의 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창된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도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어렵다는 인식을 얼마전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라 하겠다. 소위 운동권 학생들이 체험하는 이데올로기상의 탐색과 실험은 기존의 정치적 사상이나 사회철학을 넘어선 새로

은 특성과 문제점을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자유로운 지적 탐구와 사회에 대한 분석적 판단이 개방적으로 교류되지 못할 때,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적 현실이나 사회 변화에 대해서 탁트인 시야를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 지적 탐색의 좌절은 자칫 패배주의나 공격적 행동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행위자로서 대학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로 현실의 세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에 자유롭게 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실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극소수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 독점하고 또 현실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제로 통제하기 때문에 다수의 대학생과 지식인은 이른바 認知的 飢餓을 경험하게 된다. 양질의 식품이 공급되지 못하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 먹어야 한다. 언론과 연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비판을 모면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회 전체를 병적 상태로 몰고 가게 된다. 바로 이런 비극을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분석에 관련된 양서의 보급을 금하고 자유로운 지적 비판을 억압할 때 저질의 사상서적이 지하로 보급되는 까닭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둘째로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동지양식 때문에 주류 정치 분야에만 관심이 쏠리기 쉽지만, 좀더 시야를 돌리면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교육·문화·종교·외교 등의 광범한 사회 행동양식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도덕적 정당성이나 행위의 윤리성을 강조하기보다 정치적 이해 특질이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지상의 가치로 생각하게 될 때, 사회는 物量主義의 수렁에 빠지고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황폐하게 되기 쉽다. 또한 도덕이나 법에 대한 입장이 비도덕적 행위를 은폐하거나 변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법과 질서는 통제를 위한 편법적 장치에 불과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의 상실은 일반 대중의 편에서보다는 오히려 지도자급 내지 지배계층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대학생들이 흔히 느끼는 사회 전반에 대한 道德的 憤怒의 현실적 정당성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적 합리성의 결여와 도덕적 정당성의 결핍으로 인하여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社會 觀察者로서의 認識의 苦痛이 바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대학생들의 고민이라고 하겠다.

#### 4. 歷史的 行爲者로서 大學生의 問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이후에 생긴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에서 학생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했고, 독립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도 학생의 역할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방 이후 이른바 신탁통치 반대운동에서도 학생의 참여는 컸었고, 6·25의 전란에도 많은 학생이 참전하여 피를 흘렸다. 자유당의 권위주의적 압제정치에 항거하여 4·19혁명을 주도한 것도 역시 학생이었다. 민주당정부가 들어서자 학생들은 도덕적 혁신운동 내지 정신적 변혁운동으로 새생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공화당정권이 유신체제를 확립하고 힘에 의한 강압정치를 강행하였을 때 이에 항거하고 부산·마산사태를 일으키고 제4공화국이 무너진 계기를 마련한 것도 역시 대학생들이었다.

대학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건 理想主義者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대학의 理想主義者들을 어떤 視角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사회에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적 양태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대체로 현실 변혁과 관련하여 이상주의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는 民主化되고 發展되며 번영을 누린다. 그러나 대학의 이상주의자를 억압하는 사회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체제로 나아가기 쉽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 역

사적 행위자로서 대학생이 어떤 역사적 운동 내지 사회참여운동을 할 때 그것을 소수의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대학생이 반드시 이상주의자는 아니다. 이상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이상에 전념하거나 헌신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지적 비판의 능력을 지닌 지식인의 정신 속에는 理想이 자리잡고 있다. 모든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이상은 때로는 언어로 표현되지만 때로는 몸짓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비판을 말이나 글로 공개하지 못하면 은밀한 사석에서 말하게 되며, 개인적 관계에서조차 사회적 공포감 때문에 표현 못하던 상징이나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제까지 대학의 이상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것은 어쩌면 일반 대중의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의견조사라는 언어화된 표현만을 믿고 사회를 지도하거나 통제하는 것의 위험이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소리 없는 말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의 무의식적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까닭의 하나는 소수의 행위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표현하지 못한 꿈과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에 불과했던 학생들의 역사적 행동이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대학 사회의 理想主義者들이 지니고 있던 根源語로서의 理想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根源的 理想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를 위한 꿈과 이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絕對價値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발전을 위한 운동을 할 때 거기에는 강렬한 理想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理想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精神的 源流가 뿌리 깊게 있으면서 絕對價値의 지원을 받을 때 현실세계에서 꽃필 수 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가 絕對價値의 渾沌 속에 있다는 점이다. 開化期 이래

조선왕조를 지배하던 儒敎思想은 弱화되었으나, 이렇게 약화된 유교사상을 대체하여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다른 絕對價値體制는 아직도 제미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儒敎思想이 약화되면서 일종의 絕對價値眞空의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많은 新興宗敎가 발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지식인들과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도입한 基督敎가 세력을 확대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儒敎, 佛敎, 基督敎 그리고 巫俗信仰이 共存하는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絕對價値의 共存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共同的 理想이 무엇인가에 대한 社會的 合意에 도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합의된 이상이나 절대가치가 없을 때 역사적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고 창조적 동기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역사 발전에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역사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理想으로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종합적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 있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역사적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理想 그 자체가 知的 合理性과 道德的 正當性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역사 발전에 창조적 기여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현재 하고 있는 歷史的 行爲에 내재된 문제는 어떤 것인가?

명백히 학생들의 역사적 행위 내지 사회운동은 현실의 개혁을 위한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변화를 위한 몸짓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동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동기에서 출발된 행동을 통해서 이룩하려는 理想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自由니 平等이니 民主니 하는 것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할 理想으로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개혁동기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들이 현실 개혁의 동기로서 지니는 의미가 이상으로서 지니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생

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바로 理想과 絕對價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학생의 사회운동이 현실 개혁을 위한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理想主義에 입각한 역사적 행동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理想主義運動은 언제나 예언자의 목소리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 예언자는 왕이나 祭司長과는 독립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언은 전장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영원한 진리 속에서 진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외침이었다. 수천 년을 두고 민족이 추구한 꿈과 이상은 유대인이 지니고 있던 절대 가치와 일치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상주의운동은 과거·현재·미래를 일관되게 지배하는 절대가치와 영원한 진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사상과 주의가 천명되기는 하나 화음이 잘 이루어진 합창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학생들의 이상주의운동이 지니고 있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역사적 행위는 이상주의적 운동의 측면에서보다는 현실 개혁의 측면에서 볼 수 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권력의 집중화, 경제력의 집중화, 언론과 의사표현의 통제화, 교육의 비인간화, 종교의 타락화, 문화의 획일화 등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병리현상은 엄청나게 광범하다. 현실의 모순과 병리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불가능하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비합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부조리를 적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현실 개혁의 의지가 어떤 이상주의운동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비록 학생들의 사회운동이 지적 합리성이나 도덕적 정당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은 그것이 이상 추구의 한 과정이라는 것 이외에도 바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倫理的 過誤와 精神的 墮落이

학생들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개혁으로서의 역사적 행위는 합리성과 도덕성의 문제가 없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5. 大學生들의 學業問題

여기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생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흔히 공부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학업에 문제가 생기던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머리가 나쁜 것으로 置筭하러 한다. 기초실력이 모자라던 초보의 것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하면 되고 어학실력이 모자라던 별도로 어학을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를 흔히 듣게 된다. 대학생의 학업 문제 내지 공부 문제라면 공부를 하기 어려운 현실 문제와 관련시키려 하게 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판에 박은 듯한 소리를 연상하게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지니고 있는 학업 문제는 이러한 피상적 관찰과 일상적 인식을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 공부, 일, 직업에 대한 態度와 價値觀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비체로 요즈음 한국인의 모습이다. 무슨 일이건 주기만 하던 열심히 해서 잘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일·공부·일상적 활동 등에 관련시켜 볼 때 한국인이 성숙하고 바람직한 態度나 價値觀을 가지고 있다고 선뜻 말하기 어렵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문제이다.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인가를 좀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며 공부는 진학이나 취직 또는 시험 등에 쓸모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生存社會의 副産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단적 가치 내지 도구적 가치는 물론 서구나 복미의 대학생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공부나 일을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하게 되던 그 의무나 책임이 끝나면 공부나 일은 거기에서 마칠 수밖에 없게 된다. 일이나 공부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일 경우 그 목적이 달성되던 일이나 공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일이나 공부 같은 것을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만 볼 때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도전은 어떻게 되고 가능성을 최고의 수준까지 발달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秀越性의 달성이 실제로 불가능하게 된다. 계산된 인생에는 사람이 없기 마련이다. 애정이 없이 하는 일이나 공부는 삭막한 것이며 도덕적 의무의 굴레에서 하는 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거나 고역임에 틀림없다. 학문 그 자체를 위해서 학문을 하고,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예술을 할 때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게 된다. 일 그 자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 일 그 자체를 위해 일을 하고, 공부 자체를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인간은 더욱 풍요로운 정신세계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점수를 베기고 등수를 정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힘동과 사랑이 아니라 경쟁과 다름의 원리로 지배되는 학습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였다.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은 살아 남느냐 아니냐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정도의 것이다. 대학생들은 바로 이 경쟁사회에서 수많은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집단이고 승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기는 대학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경쟁에서 항상 이기도록 훈련된 사람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인간관계가 일시적이고 단속적일 뿐만 아니라 피상적 교섭에서 끝나게 되기 쉽다. 공부를 해도 경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학점이 나 따고 시험에 패스할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게 된다. 공부라는 활동에 개인적 의미와 감정적 애정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 이것이 현재 대학이 앓고 있는 만성적 몸살이며 적지 않은 대학생의 생기를 빼앗아 가고 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국 사회와 대학생이 다 같이 직면한 삶의 철학적 문제를 보게 된다. 삶의 여러 가지 활동, 특히 일이나 공부 같은 것을 手段이나 道具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두는 至上的 價値觀 내지 目的的 價値觀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공부를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게 될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疎外現象이다. 자신이 하는 공부의 목적과 의미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게 될 때 일어나는 소외현상으로 意味喪失이나 自我遊離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은 학습의욕을 상실하기 쉽고 현실세계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을 경험하기 쉽다. 또한 사회적으로 주어진 정상적 文化와 規範의 일상적 체도를 벗어난 삶을 실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非社會的이거나 反社會的인 病的 生活에 빠져 들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도덕적 타락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신경증이나 정신병과 같은 심리적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공부하는 존재로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물론 학업에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動機나 價値發達에서 비롯되는 것 말고도 무척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過大學校, 多人數學級, 圖書나 學習資料의 절대적 부족, 實驗實習의 未備, 教授의 絕對不足, 教育支援體制의 병리와 결손, 學校行政 내지 文教行政의 非人間化와 權威主義 등 수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런 환경적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학생들 자신의 정신적 문제 내지 심리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논외로 하려고 한다.

## 6. 大學生의 心理的 問題

앞에서 일과 학업에 대한 價値觀의 발달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던 학생들 개인에게 여러 가지 心理的 問題가 생기게 됨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지니는 심리적 문제는 무척 광범하기도 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어떤 것인가?

가?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독특하고 다양한 면이 있다. 그 까닭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갈등과 문제가 절정에 달하는 중·고교시절에 학생들은 입시 문제로 청소년기의 문제를 대학에 들어간 뒤에 생각하자는 식으로 다루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기만 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으리란 幻想的 期待 속에서 고교시절을 보낸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문제를 입시라는 것 때문에 옆으로 미뤄 두려고 한다. 그런 결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니는 문제는 靑少年期의 문제와 成人前期의 문제가 융합되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을 만나서 카운슬링을 하던 대체로 청소년기의 핵심적 문제인 自我正體의 問題가 중심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동질적 집단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중·고교시절에 누리던 집단 속에서의 우세한 입장이 자연 내려올 수밖에 없다. 학우집단에서의 地位變動은 심하던 정신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충격은 적응적 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다.

학우집단에서의 지위 변동과 함께 대학의 1·2학년생이 경험하는 다른 문제는 거대한 집단 속에서 느끼는 일종의 고독감과 같은 것이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시험만 보면 남은 시간은 감독이나 지시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에게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의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혼자 생각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내던져진 단독자임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自我를 探索하고 實驗하기도 한다. 버려진 듯한 상태를 잘 다루게 되면 성숙한 삶의 태도를 길러 나갈 수 있게 된다. 대학생들 가운데 거대한 집단 속에 외톨이로 버려진 존재로 자신을 지각하는 경우 이는 自我成長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

나 이와는 반대로 自我를 군중 속이나 집단에 무조건 同調시키거나 아니면 自我孤立으로 빠져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대학 1·2학년 학생들이 겪는 자아정체의 문제가 ‘네가 어디 있느냐?’하는 것임에 비해 3·4학년의 학생들이 흔히 겪는 문제는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하는 문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설화로 표현하면 타락한 직후 여호와가 아담에게 질문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하는 것이 저학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면에 고학년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하고 자신의 길을 묻던 베드로의 의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삶에 대한 질문을 묻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그들은 삶의 목적과 인생의 전체에 관련된 장기적 목표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묻는다. 이것은 꿈과 이상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모든 움직임을 적조해 나가는 삶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절대가치가 혼란 속에 있는 사회에서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진학·취직·군입대·아르바이트 등과 관련된 삶의 활동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게 된다. 진로와 이성관계는 대학생의 二大問題라고 할 만큼 보편적이고 광범한 문제이다. 進路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일생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과제라고 하겠다. 취직과 진학 또는 유학 등에 관련된 문제는 현실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理想과 自我實現에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상과 자아 실현은 바로 직업이나 현실세계의 활동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이성과 결혼에 관련된 문제는 물론, 교우관계로 인해서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性·戀愛·結婚 그리고 友情·人情의 문제는 생명 그 자체만큼이나 끈끈하고 진한 것이다. 본능과 이성과 도덕이 강렬하게 부딪치는 삶의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하겠다.



네제로 종교·도덕·철학·문화 등에 관련된 현실적 문제가 있다. 대학생들 가운데 종교에 관련된 일들로 갈등과 선택의 갈림에서 방황하는 학생수는 일반인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다. 종교내에서의 문제만 아니라 종교간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다섯째로 共同體의 問題로 고민하고 선택과 결정의 기르에 서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체감을 지닐 수 있는 집단이 어떤 것이냐로 고민할 수도 있다. 그 집단이 민족이나 인류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가 지닌 국제정치적 특수성 때문인지 인류와 동일시하고 일체감을 느낄 정도로 성숙한 共同體意識을 지닌 대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을 다루는 경험의 폭이 넓고 다양하게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비교적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런 까닭은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음미하고 검토할 여유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도 自我와 世界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관찰에 대해 자유롭고 합리적인 비판적 사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現實世界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와 사상을 지니게 될 경우 因襲의 水準에서 스테레오타입이 된 폐쇄적 이데올로기와 도덕적 판단이 가혹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학생들이 지니는 教育的 問題나 心理的 問題는 人格, 態度, 價値觀, 道德性 등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콜버그(Kohlberg)은 도덕성의 발달을 因襲以前, 因襲, 因襲以後의 세 수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우리의 教育은 因襲의 단계에서 人間特性的 發達이 固着되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세계와 인류 그리고 우주의 문제를 현실적 문제에 비추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에서는 지도계층이 分斷과 安保를 스테레오타입이 된 대응양식으로만 다루고 통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까닭에 指導階層에서 창조적 지성의 광장을 아직도 대학문화에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문화의 폐쇄성은 학생들의 心理的 葛藤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道德的 成熟과 건전한 性格形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自我를 세계와 연결시켜 자아를 확대하고 성장시켜 나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끼는 心情的 判斷과 社會的 因襲의 庇蔭에서 생기는 갈등을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또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결과로 우리 사회에서는 非行, 犯罪, 神經症, 精神病 같은 것과 함께 自殺, 學校拒否, 集團的 破壞 같은 것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단성적인 학원사태와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問題의 解決을 넘어서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눈앞에 닥친 것들부터 해결하게 된다. 대학생들의 문제도 겉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되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피상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좌절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영속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다. 바로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현상으로는 피상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대학생이 청소년기로서 지니는 自我正體(ego identity)의 문제와 성인 초기로서 지니는 愛情과 進路의 문제는 실제로 사소한 일상적 문제로 제기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학교·메스컴 등의 관심은 주로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는 몇 가지 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매달려 왔다. 대학생들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적으로 고민하고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참으로 미미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비유해 말하면 장티푸스로 열이 있는 환자에게 해열제만을 먹이는 것과 흡사하게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하겠다. 도둑질을 하는 아이에게 도둑질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일

만을 하고 그 아이의 도덕적 발달과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우매한 부모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부·학교·매스콤은 일해 왔다.

그런 결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더욱 나빠져 도덕적 성숙은 커녕 도덕적 퇴행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그렇지도 신경을 쓰고 애쓰는 학생들의 정치적 운동은 완화되거나 승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만이 아니라 사회의 만성적 문제로 되어 있다. 학생과 교수 그리고 행정요원이라는 세 집단간의 관계는 점점 좋아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듯한 조짐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 사이에도 우정이 돈독하여지고 화해의 정신이 넘쳐야 할 것임에도, 이제 불행하게도 학생들간의 對立과 葛藤도 첨예화되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피부에

와 닿는 것만을 느끼고 생각하거나 질병의 증상만을 보고서 나타난 문제나 증상만을 치료하려는 것이 오히려 문제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대중요법에만 치중한 學生指導의 方向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새로움의 길이란 바로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본질적 문제를 깊이 느끼고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敎育文化를 건설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까지 生活指導와 相談이라는 學問分野에서 카운슬러가 고민하고 발견한 삶의 원리와 문제 해결의 길이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카운슬링은 분명 이 세대의 대학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 갈 수 있는 지혜의 샘인 것이다. 그러나 그 지혜의 샘을 즐겨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 비극의 다른 측면이 있다.\*

### 〈投稿案内〉

「大學敎育」誌 제24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敎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 및 敎授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敎育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동향 소개, 최근(2~3년내) 外國에서 발간된 學術書籍 중에서 국내 학계에 널리 소개할 만한 서적에 대한 서평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敎授談論

③ 學科別 敎育課題

④ 新刊紹介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②는 15매, ④는 13매 또는 22매)

3. 期 限—1986년 9월 20일

4. 稿 料—매당 2,500원 (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敎育協會 (T. 783-3891, 3067)

6. 附 記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